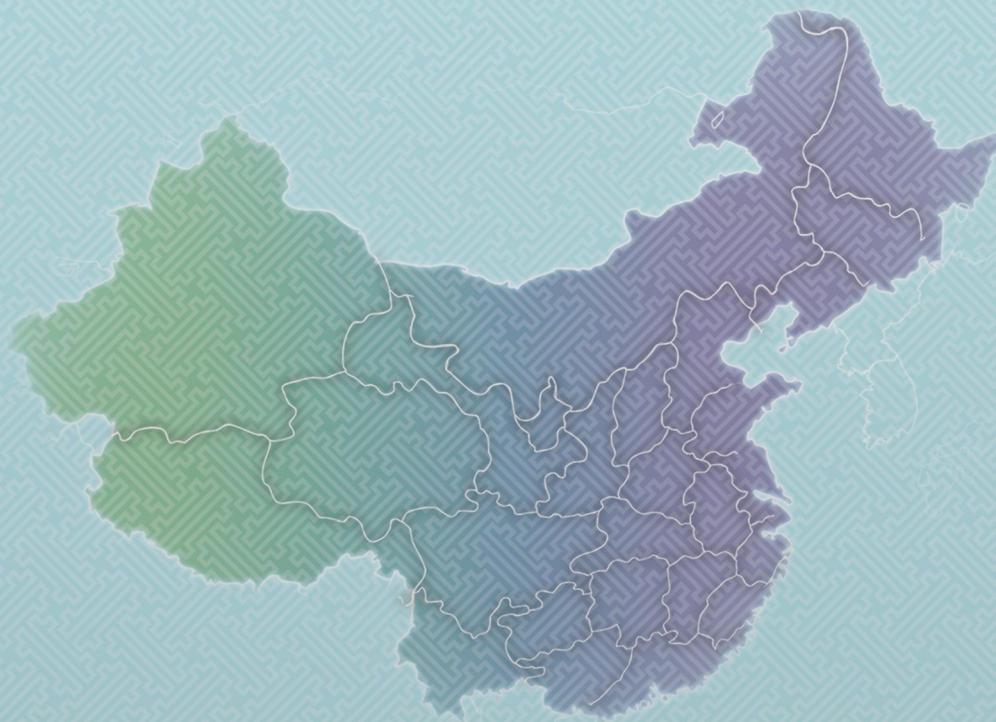


중국 중앙국유기업의 대(對)광둥성 투자현황 및 전망

정지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부연구위원 (jhjung@kiep.go.kr, Tel: 3460-1280)

김홍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연구원 (hwkim@kiep.go.kr, Tel: 3460-1278)



차 례 ●●●

1. 개요
2. 중앙국유기업의 지역별 투자현황
3. 광둥성에 대한 투자확대 요인 및 주요 사례
4. 전망

주요 내용 ●●●

- 최근 중국의 70개 중앙국유기업과 광둥(廣東)성 정부는 2조 위안 규모의 204개 협력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광둥성의 도시별 협력사업을 포함하면 총투자규모가 약 3조 위안에 달함.
 - 중앙국유기업과 지방정부 간 협력사업은 지난 2년간 중국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2010년 중반 이후 이러한 추세가 급증하는 가운데 광둥성에 대한 투자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함.
- 광둥성에 대한 중앙국유기업의 투자는 석유화학, 신에너지, 중공업 관련 기계, 전기자동차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주장(珠江)삼각주 지역에 76% 이상 집중되어 있음.
 - 특히 광저우(廣州) 및 선전(深圳)에 대한 투자규모는 각각 8,337억 위안, 4,700억 위안에 달함.
 - 이러한 대규모 협력사업은, 중앙국유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산업구조 업그레이드를 신속히 추진하려는 광둥성 정부와 투자유치에 적극적이고 거대시장을 보유한 광둥성을 수익성 높은 투자처로 인식한 중앙국유기업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임.
- 광둥성은 신속한 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중앙국유기업과 협력을 보다 강화할 것이며, 이를 통해 자본 및 기술집약적 산업의 발전 기반이 구축될 전망이다.
 - 그러나 단기간 내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면서 자원선점을 위한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이로 인해 광둥성의 민간기업 및 다른 경제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1. 개요

■ 지난 3월 중국의 70개 중앙국유기업¹⁾과 광둥(廣東)성 정부는 2조 위안 규모의 204개 협력사업 계약을 체결하였고, 광둥성의 도시별 협력사업을 포함하면 총투자규모가 약 3조 위안에 달함.

- 성(省) 정부 주관의 ‘광둥성-중앙국유기업 전략협력 좌담회 및 조인식’뿐만 아니라 광저우(廣州), 둥관(東莞), 자오칭(肇慶), 중산(中山) 등 시(市) 정부 주관의 투자유치회가 개최되었음.
- 시 정부 주관의 투자유치회에서 체결된 협력사업은 모두 104개로 그 투자규모는 8,498억 위안에 달함.
- 이번에 체결된 협력사업은 대부분 12차 5개년 계획 기간(2011~15년) 동안 분산되어 투자될 계획임.
- 이번에 광둥성 정부와 투자계약을 맺은 70개 중앙국유기업은 중국 전체 중앙국유기업(121개)의 58%에 해당함.

■ 중앙국유기업과 지방정부 간 협력사업은 지난 2년간 중국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2010년 중반 이후 이러한 추세가 급증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중국정부는 4조 위안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였으며, 이 자금은 주로 중서부 내륙지역의 인프라 건설 분야 등에 집중 투입되었음.²⁾
- 또한 경기부양책이 집중된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한 중앙국유기업이 상당 부분의 투자자금을 획득하였음.³⁾
- 막강한 자금력에 기반한 중앙국유기업은 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대규모 투자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지방정부에서 중앙국유기업과 협력사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면서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음.
-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부양책의 최대수혜자인 중앙국유기업은 자산총액, 영업수익, 납세총액, 세후이윤 등 주요 경영지표에서 5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성장함.

-
- 1) 중국의 국유기업은 정부의 관리 권한에 따라 중앙정부(국무원 국유자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 중앙국유기업과 지방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지방국유기업으로 분류됨. 이 중 중앙국유기업은 중국의 거시정책을 실현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중앙정책의 목표를 투자수익보다 우선시하며, 정부 역시 국유은행을 통한 자금 투입, 독점사업권 부여 등의 방법으로 중앙국유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지방국유기업 역시 기업 자체의 이윤보다는 지방정부의 정책목표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중앙국유기업과 유사하나 개혁개방 이후 추진된 국유기업 개혁을 통해 중앙정부 직속의 대형 국유기업이 더욱 발전하고 지방정부 관할하의 중소형 지방국유기업은 경영난을 겪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2) 중앙국유기업과 협력사업 추진이 비교적 활발했던 지방정부는 산시(山西)성, 안후이(安徽)성, 후난(湖南)성, 구이저우(貴州)성, 윈난(云南)성, 쓰촨(四川)성 등 중서부 내륙지역이며, 광둥성, 상하이시, 저장성 등 일부 연해지역에서도 협력사업이 추진되었음.
 - 3) 삼성경제연구원의 『이슈리포트(2010. 4)』, 「국진민퇴(國進民退)의 발전과 전망」에 따르면 4조 위안의 경기부양자금 중 70% 이상이 중대형 국유기업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산됨.

- 중앙국유기업은 각 지역의 특화된 자원, 시장, 산업 우위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연관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여 해당 중앙국유기업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2. 중앙국유기업의 지역별 투자현황

■ 최근 중국 언론에 발표된 일부 주요 지역(省)과 중앙국유기업의 투자협력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지난 3월 2일 간쑤성 정부는 39개 중앙국유기업과 협력사업 조인식을 통해 총투자규모 1조 1,461억 위안의 208개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음(표 1 참고).

- 서부 내륙에 위치하고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간쑤성은 외자 및 민간기업을 통한 산업발전의 한계를 인식하고 중앙국유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 11차 5개년 계획 기간(2006~10년) 동안 간쑤성에 투자한 중앙국유기업은 모두 35개로 그 투자규모가 4,747억 3천만 위안에 달하였으며, 간쑤성 경제사회의 발전을 촉진하였음.
- 이번 조인식에는 파탕(大唐)그룹, 동팡(東方)전기그룹, 중국황진(黃金)그룹, 중국 창장삼협(長江三峽)그룹, 중국항텐(航天)과학기술그룹, 중국화녕(華能)그룹 등 중앙국유기업이 참여하였음.

■ 2010년 12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구이저우성-중앙국유기업의 투자발전 간담회에서 총투자규모 3천억 위안의 47개 프로젝트가 체결되었음.

- 본 간담회에서 성사된 프로젝트 중 2,300억 위안에 달하는 33개 사업은 2011년에 착공되며, 나머지 14개 사업은 2012년에 착공될 예정임.
- 에너지, 광산 등 자원이 풍부한 구이저우는 중앙국유기업의 자원개발 분야 우위와 민간기업의 자원 가공 분야 우위를 접목하여 산업 체인을 확대할 계획임.

■ 2010년 말 47개 중앙국유기업의 산시성에 대한 투자규모는 총 8천억 위안에 달했으며, 지난 3월 양자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산시성-중앙국유기업 협력발전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음.

- 중앙국유기업은 12차 5개년 계획 기간(2011~15년) 동안 산시성에 약 5,132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며, 올해 시작되는 사업은 79개로 800억 위안 규모임.
- 협력사업은 대부분 화력발전, 석탄가스, 석탄화공, 풍력발전, 바이오, 전자재, 정보, 무역유통 등의 분야로 산시성의 경제 구조조정 및 발전방식 전환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표 1. 중국 주요 지역별 중앙국유기업 투자현황

주요 지역(省)	중앙국유 기업 수(개)	협력사업 수(개)	투자규모 (억 위안)	주요 투자업종	시점
광둥(廣東)	70	204	20,852	석유화학, 신에너지, 중공업기계, 전기자동차 등	2011. 3. 14
간쑤(甘肅)	39	208	11,461	신에너지, 신소재, 장비제조, SOC 등	2011. 3. 2
구이저우(貴州)	—	47	3,000	고효율 농업, 가공제조, 고급서비스업 등	2010. 12
산시(山西)	47	100	8,000	에너지, 재료, 장비제조 등	2010년 말
후난(湖南)	68	223	7,000	농산물 가공, 제련, 전략적 신산업 등	2010년 말
윈난(云南)	16	—	3,206	신에너지, 장비제조업 등	2010년 말
푸젠(福建)	—	27	3,740	전자, 장비제조, 석유화학, 신소재, SOC, 에너지 등	2010. 12
장시(江西)	—	365	2,658	전력, 자동차, 유색금속 등	2010. 9

주: 광둥성의 경우, 성(省)정부 주관으로 이루어진 투자유치회 결과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표 2]의 합산 결과와는 다름. [표 2]에는 성 및 지급(地級)시 정부가 주관한 투자유치회 결과가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음.

자료: 『人民日報』(2011. 4. 20), 『觀察: 地方政府緣何熱衷“聯姻”“央企”?』; 『證券時報』(2010. 12. 10), 『央企與福建簽4000億投資大單』; 『甘肅日報』(2011. 4. 2), 『甘肅與央企: 里程碑式的合作』; 『人民日報』(2010. 12. 27), 『貴州與央企約47個大項目』; 『湖南日報』(2011. 3. 13), 『推動與央企對接 湖南與央企合作項目223個』; 『證券時報』(2010. 12. 10), 『央企與福建簽4000億投資大單』.

■ 2010년 12월 푸젠성-중앙국유기업 프로젝트 투자협의회에서 전자, 석유화학, 장비제조 등의 분야에 총 3,740억 위안의 투자협력이 체결됨.

- 푸젠성 정부는 중앙국유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국유기업이 투자한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채권, 신탁, 펀드, 보험 등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 공업용지 보장, 관련 인프라 완비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 2011년 4월 현재 푸젠성에서 진행 중인 중앙국유기업 프로젝트의 투자규모는 2,448억 위안으로, 이는 푸젠성 중점 프로젝트 총투자규모인 9,679억 위안의 25%에 해당함.

■ 광둥성에 대한 중앙국유기업의 투자는 석유화학, 신에너지, 중공업 관련 기계, 전기자동차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주장삼각주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⁴⁾

- 지난 3월 개최된 광둥성 정부 주관 투자유치회(광둥성-중앙국유기업 전력협력 간담회 및 조인식) 및

4) 주장삼각주 지역은 광둥성 내 광저우, 포산, 자오칭, 선전, 둥관, 후이저우, 주하이, 중산, 장먼 등 9개 도시를 포함함.

각 지급시 주관 투자유치회(지급시-중앙국유기업 간담회 및 조인식)에서 광둥성의 성도(省都)인 광저우시 및 경제특구인 선전(深圳)시는 각각 8,337억 위안, 4,700억 위안의 투자를 유치하였음.

- 광저우와 선전을 중심으로 주장삼각주 지역에 약 2조 2천억 위안이 투자될 계획이며, 주장삼각주 지역에 대한 중앙국유기업의 투자규모는 광둥성 전체의 76% 이상을 차지함.

표 2. 광둥성 지급(地級)시별 중앙국유기업 투자현황

지급시 (地級市)	광둥성 정부 주관 투자유치회 성과			각 지급시 주관 투자유치회 성과			지급시별 투자규모
	중앙국유 기업(개)	협력사업 (개)	투자규모 (억 위안)	중앙국유 기업(개)	협력사업 (개)	투자규모 (억 위안)	
광저우	20	20	3,799	30	45	4,538	8,337
포산	—	2	130				130
자오칭				22	30	2,000	2,000
선전	51	52	4,700				4,700
둥관	—	3	35	—	5	134	169
후이저우	—	11	1,536				1,536
주하이	—	19	1,644				1,644
중산				20	24	1,684	1,684
장먼	—	13	1,278				1,278
메이저우	—	2	88				88
지에양	12	12	2,680				2,680
산터우	—	5	201				201
양장	—	6	133				133
마오밍	—	11	1,202				1,202
잔장	7	7	1,462				1,462
사오관	—	—	650				650
칭위안	—	6	72	—	—	142	214
합계	70 ^①	204 ^②	20,852 ^③	— ^④	104	8,498	29,350 ^⑤

주: ①, ②, ③은 해당 표의 각 지급시 데이터의 합산 값이 아니라 각종 언론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근거한 수치임. 각 지급시별 수치는 해당 데이터를 발표한 지급시에 대한 정보만 수록한 것으로, 이를 따로 발표하지 않은 지급시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는 상황임. 특히 ①에 해당되는 기업 수 합계는 특정 기업이 여러 지역에 투자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단순 합산으로는 추정하기 어려움.

④는 ①과 같이 단순 합산이 어려우며, 이에 대한 언론의 종합보도 및 투자기업 목록 역시 발표되지 않음.

⑤는 각 지급시 주관 투자유치회에서 성사된 협력사업의 투자규모 합계와 ③을 합산한 결과임.

자료: 각종 언론자료를 토대로 필자 작성.

그림 1. 광둥성 지급(地級)시별 중앙국유기업 투자현황



3. 광둥성에 대한 투자확대 요인 및 주요 사례

가. 요인

- 광둥성 정부는 산업구조 고도화 및 발전방식 전환 등을 중앙국유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함.
- 광둥성 내에서 중앙국유기업과 전면적인 투자협력이 공론화된 것은 아니지만 이는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음.
- 다국적 기업 및 대만·홍콩 기업보다는 중앙국유기업이 단기간 내에 대규모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아 산업구조 업그레이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 또한 중앙국유기업은 교통인프라, 신에너지, 항공기술 분야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전략적 신산업 분야 등에서 리스크 부담 능력 역시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 밖에도 건설한 대형 지방화유기업 및 민간기업이 모두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광둥성은 중앙국유기업의 투자를 통해 대형 프로젝트 등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이 지나치게 분산되어 있는 상황을 보완하여 광둥성 경제의 양과 질을 개선하고자 함.

- 대형 프로젝트, 대규모 투자 등으로 인한 변화는 광둥성의 지역내총생산(GRDP)이나 재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관산업 발전, 소득 및 소비 증가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침.

■ 중앙국유기업에 대한 정리 작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수익성 높은 투자처를 찾고 있는 중앙국유기업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거대한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 광둥성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킴.

- 올해 초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명젠민(孟建民) 부주임이 발표한 ‘국유자본 경영예산작업 완비, 중앙국유기업 핵심경쟁력 강화’에 의하면 중앙국유기업을 각 업종의 선두기업 중심으로 100개 이내로 줄일 방침임.
- 2003년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출범할 당시 196개였던 중앙국유기업은 현재 121개로 축소되었음.
-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및 최근의 리비아 사태 등으로 해외자산의 리스크가 확대되었음.
- 국무원발전연구중심 산업경제연구부의 석야오둥(石耀東) 부부장은 다양한 업종에서 광둥성이 시장판도의 중심이라고 언급함.
- 가장 먼저 광둥성에 투자한 철강업체인 바오강(寶鋼)그룹은 2008년 당시 철강재 소비 1위 지역이 광둥성이었기 때문에 진출 결정을 하였음.
-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한 석유화학 분야의 중앙국유기업들은 광둥성이 중국 최대의 가공유·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등 화공제품 소비시장이며 공급이 부족한 지역임을 고려하였다고 밝힘.
- 광둥성의 황화화(黃華華) 부성장은 최근 중앙국유기업 투자유치회 및 조인식 등에서 중앙국유기업이 광둥성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우수한 투자환경 및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함.

나. 주요 사례

- 중국 3대 석유기업인 중국해양석유총공사(中國海洋石油總公司)는 선전, 광저우, 주하이 등 광둥성의 여러 도시에서 전기자동차, 신에너지, 화공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⁵⁾
- 중국해양석유총공사가 올해 중앙국유기업인 푸톈(普天)그룹과 합자하여 설립한 푸톈해양석유신에너지유한공사(普天海洋石油新能源動力有限公司)는 선전시 정부와 선전시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사업에 대한

5) 2010년 매출액 기준 중국 석유산업 1위 기업은 중국석유화학그룹(中國石油化工有限公司, Sinopec Group)이며, 2위는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中國石油天然氣股份有限公司, PetroChina), 3위는 중국해양석유총공사(中國海洋石油總公司, CNOOC)임. Sinopec과 PetroChina는 육상 석유자원 개발, CNOOC는 해저 석유자원 개발이 중점사업임.

투자협의를 체결함.

- 이 밖에도 중국남방전력회사(中國南方電網), 국가전력회사(國家電網), 바오리(保利)그룹 등이 선전시 전기 자동차 충전설비 사업에 투자할 계획임.
- 또한 광저우에서는 신에너지 응용과 관련된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며, 주하이에서는 자회사인 해양석유공정주식회사(海洋石油工程股份有限公司)를 통해 심해유전 생산기지를 건설하고 있음.
- 이 밖에도 지에양에서는 광둥성 동부지역 LNG(액화천연가스) 사업을, 잔장에서 광둥성 서부지역 LNG 사업⁶⁾을 추진 중이며, 후이저우에서는 석유정제 2기 사업에 507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임.

■ 원자력 발전을 주업으로 하는 유일한 중앙국유기업인 중국광둥원자력발전그룹(中國廣東核電集團有限公司)은 원자력 및 풍력 발전 등 신에너지 사업을 선전, 지에양, 자오칭, 장먼 등에서 추진 중임.

- 지에양에서 추진 중인 원자력 및 풍력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규모는 각각 800억 위안, 250억 위안에 달함.
- 또한 장먼에서는 550억 위안을 투자하여 원자력발전 및 연관산업 조성 사업 등 투자할 계획임.

■ 중국 최대의 철강기업인 바오강(寶鋼)그룹 및 중국 최대의 선박 제조·수리기업인 중국선박공업그룹도 광둥성의 철강제조 및 선박제조 분야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함.

- 바오강그룹은 잔장지역에서 고품질 철강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500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임.
- 중국선박공업그룹(中國船舶工業集團公司)은 '광둥성-중앙국유기업 전략협력 좌담회 및 조인식'에서 광저우, 주하이, 중산 등 3개 시와 해양산업 및 조선 분야에 대한 전략적 협력을 체결함.
- 해양개발 관련 산업 및 선박제조 등 첨단장비 제조업에 대한 중산 및 주하이 투자규모는 각각 100억 위안에 달함.

4. 전망

■ 광둥성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산업구조 고도화를 대규모 투자를 통해 보다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중앙국유기업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6) 잔장에서 광둥성 서부 LNG 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은 중국해양석유총공사의 자회사인 중하이석유가스그룹(中海石油氣電集團有限公司)임.

- 광둥성의 노동력 및 전력 등 자원부족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며, 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자본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발전이 요구되는 상황임.
- 정책, 자본, 금융 등의 측면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중앙국유기업은 광둥성이 필요로 하는 자본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외자기업과 달리 해외경기의 영향을 적게 받고 위기의 순간에 중앙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존재함.
- 무역의존도가 높은 광둥성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수출급감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큰 타격을 입은 경험 때문에 해외부문의 불안정성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졌음.
- 특히 중앙국유기업의 투자를 통한 발전방안 모색은 광둥성 정책결정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중화학 공업, 교통·통신 인프라 건설, 신에너지, 항공 및 해양산업 등의 분야에 대한 중앙국유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노동집약적 산업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광둥성의 경제발전이 유지될 전망이다.
- 또한 이를 통해 자본 및 기술 집약적 산업의 발전기반을 구축하여 산업구조 업그레이드가 순조롭게 시작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단기간 내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면서 자원선점을 위한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이로 인해 광둥성의 민간기업 및 다른 경제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중대형 기계, 철강, 석유화학 등 중공업 발전에 필요한 공업용수 공급량이 시장수요보다 적은 상황이며, 용수공급 관련 관리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
- 광둥성은 선전, 광저우, 잔장 지역에 3개의 심해항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공급 가능한 용수량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
- 이에 공업용수 수요에 대응하여 주장(珠江) 연안에 위치한 둥관, 순더(順德) 등의 지역에 내륙항구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광둥성 정부 정책자문고문위원회 위원이자 선전(深圳)종합개발연구원 부이사장인 리뤄리(李羅力)는 광저우, 주하이, 잔장, 장먼 등의 지역 모두가 중앙국유기업과 화공 분야에 대한 협력투자를 추진하였으나 이는 주장삼각주 지역의 용수문제를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함.
- 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앙국유기업의 투자는 광둥성의 고질병인 인력부족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민간기업 및 다른 업종의 피해가 커질 전망이다.
- 광둥성의 한 에어컨 제조사 대표는 중앙국유기업인 CSR(中國南車)사와 장먼시의 협력사업 추진으로 인해 해당지역의 노동력 부족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으며, 이는 주변지역의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토로함.
- CSR사는 장먼시에 철도차량 부품제조기지를 준공하기 직전 춘절(春節, 음력 설) 전후로 발생하는 인력부족 시기가 되자 중앙국유기업임을 강조하는 광고를 통해 장먼시를 비롯한 주장삼각주 전 지역에서 노동자

를 고용하였음.

- 또한 등관 및 후이저우에 있던 성(省)급 기술학교 두 개가 장먼으로 이전해 올 계획으로, 중앙국유기업의 장먼시에 대한 투자로 장먼시 및 주변지역 기업의 노동력 부족문제가 심화되었음.
- 이 밖에도 중앙국유기업 중심으로 광둥성의 산업구조가 재편됨에 따라 광둥성의 민간경제가 위축되고 중앙국유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져 공정한 시장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민간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을 초래할 수 있음.
- 일부 산업에서 과잉생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중앙국유기업과 민간기업 간 경쟁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있음.
- 이러한 평가에 대해 선전시 전자상회(電子商會) 장궈이(張國一) 부회장은 중앙국유기업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연구가 부족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상품개발 및 기술장비 구축 등의 측면에서 민간기업은 태생적으로 중앙국유기업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함.
- 민간기업과 달리 중앙국유기업은 독점사업권, 대출우대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기 때문에 불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기 쉽고, 이는 민간기업의 투자 적극성 감소 및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KIEP**